

시론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현재 한국에서 가장 상성에 앉아 웅숭한 대접을 받는 단어를 두 개만 꼽으라면 많은 단어들 중 '상상력'과 '문화'가 선정될 것이다.

지금의 한국을 만든 세태 변화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화두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데, 그 부침 속에서 '상상력'과 '문화'는 특히 20년 이상 한국의 세태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빛나는 화두였다.

불온한 상상력의 사회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문화는 약하고 강한 것이 존재하는가? 상상력과 문화는 어디든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무조건 좋은 것인가?

상상력과 문화를 사물에 대입해서 설명한다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적당할 것 같다.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처럼, 상상력은 이전의 시스템을 전복해버린다.

개발 놀이에 불과하다. 상상력과 문화도 마찬가지로. 고차 상품을 더 팔아먹는 것에 동원된다면 타락한 기술적 수사에 불과하고, 저열한 키치Kitsch에 불과하다.

문학, 미술, 음악을 창조하는 예술가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도 된다. 빛나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해도 대부분 겨우 공평이나 면할 테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테니까.

화도 마찬가지로. 발취하고 만드는 과정 속에 인간과 생명체에 대한 공감에 배제되고, 결과물이 전 지구적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과 계급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원자폭탄을 비롯한 정점 무기와 독성 화학물질들도 상상력이 낳은 것이고, 전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도 모두 문화의 얼굴을 갖고 있다.

자치칼럼



최철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올바른 '문화매개'의 역할, 민선 8기에서 기대해 본다

이와 같은 '매개사상'을 가지고 있다. 문화가 국가의 흥망을 가능하는 척도이자 근원이 되는 힘이라고 생각한 프랑스는 특히 문화에 대한 식견이 정치인들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로 보았으며, 정권을 차지한 정책입안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비견해 대한민국의 문화 대통령 김대중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의 융성한 한류 문화의 기반이 되는 정책들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며, 그의 정책 추진과 인재 등용 속 등 많은 면에서 문화 안에 내포된 힘이 공유되어 공감을 나누는 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제 광주를 이야기해보자. 문화광주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광주시의 대표적인 문화 정책인 '문화매개'로 인해 펼쳐지는 생활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입어 회자시키고 기억을 강

요하는 동일 반복 패턴의 문화정책들이 연상된다. 5·18을 문화로 승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필자도 동감하며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매개자로서 지원은 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팔거리 원칙'이라는 문화정책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결과로 프랑스는 문화강대국이라는 가치 아래 융합해 관광산업을 비롯, 다양한 국가정책에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기억하기 위한 5·18, 미래의 희망을 쏘아보려는 5·18, 세계인의 5·18, 젊은이 미래세대의 5·18 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보다는 긴 세월 동안 흘러오며 또 하나의 권력 집단에 의한 획일화된 5·18 문화로 걸어오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다가온다.

문화의 확장성과 저변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광주의 문화는 정체되어왔다. 지금까지 이행되는 광주 문화는 프로젝트 단위의 성향의 획일화된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고, 정책입안자들 역시 스피커를 자처하는 문화정치인과의 상생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진보적 변화에 미흡한 것을 우려하는 바 있다.

문화생산자인 예술인들과 소비자 시민들이 함께 문화상품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플랫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생각과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매개역할의 광주시정 노력이 절실하다. 문화인프라를 키우고 이로 인해 확대되는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광주시와 시민들 예술인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열쇠가 아닐까?

민선 8기 광주시는 지금까지 거닐어 온 오류의 문화정책을 과감히 개혁하고 문화시장으로서 강기정 표 지정을 해 나아가야만 한다.

변화로 인한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역시 발전의 마중물이라는 생각으로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당질대는 민선 8기 문화광주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 주의보

중고거래 어플의 가입자 수가 올해 3천만 명, 그리고 월 이용자 수는 1천8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셀인데 사람들의 관심과 이용이 늘어난 만큼 거래 사기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기 유형이 있을까? 고가의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올려 입금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가자에게 팔겠다고 구매 희망자에게 입금을 독촉하고 이에 판단력이 흐려진 구매 희망자가 입금을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유도하여 선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일단 판매자가 선입금 및 택배거래를 원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기를 틈을 이용해 택



배거래를 유도하여 구매자가 돈만 입금하고 물건을 못 받는 경우나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구매하기 전 판매자의 이전 판매 이력을 살피고 경찰청 사이트에서 사기 의심 전화 및 계좌번호를 미리 조회하여 사기 전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마지막으로 직거래를 한다 해도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판매자가 판매 시 울린 상태와 동일한 상태인지 다른 하자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되도록 밤 시간대는 피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직거래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우리 모두 온라인 사기 예방을 위해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자. (박양희·해남경찰서 경무계)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가정 내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명절 고향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고향에 있는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시 초기 소화에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 소문 방치 한 대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설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골 마을의 경우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이 많으며 소방관서와 원거리의 마을이 많은 만큼 초기 대응에 필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더욱 중요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고향 방문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중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 가족·친지 분들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됐으면 한다. (이우람·담양소방서 119담당센터소방교)

* 외무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전남도-순천시 경전선 도심 우회 공동 대응을

전남도가 순천시가 요구하고 있는 경전선 도심 구간 우회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 후 사업성 부족 시 당초 노선 재추진이 어렵다며 난색이고,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2019년 12월 예타 통과 후인 2021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자리였다. 순천시가 대안을 공식 건의한 때는 9월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 시점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6월 국민의힘 조순진 국회의원을 통해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지역사회는 경전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기존 하루 6회에서 40여차례 열차가 도심을 관통하며 교통체증, 소음,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구조물 설치로 생태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통합 내세운 '김대중정신' 새겨야 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강기정 시장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의 대독을 통해 "역전히 오월 광주에 살아 숨 쉬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다.

여야 정치권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된 추도식에서 국민통합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혜와 용기, 대화와 용서, 김대중식(式) 정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비로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얻었다"며 "수백 년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서구의 선진 민주국가와도 대등하게 마주 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고, 국제통

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였다. 반세기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깨뜨리고 평화적 통일의 물꼬를 텄다.

특히 취임 100일을 갖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혐오의 정치, 남 탓하는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3주기를 맞아 통합의 가치가 더욱 조명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룬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합의 길 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외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모두 만나 되는 대동 세상,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엄숙한 겨울을 이겨낸 '인동초 김대중'의 의지를 되새겨야 하겠다.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대중의 위대한 삶을 다시 돌아보는 지금이다.

이침묵은어는 詩

이순신

이국민

지금은 하나가 아닌 하늘과 땅의 바다 갈 수도 울 수도 없는 사이 강물은 흘러 다시 잊고 통했다 그 바다 다시 잊고 싶은 짙줄

내가 죽은 곳은 노랑바다가 아니다 차라리 숨기고자 살아서 욕될 목숨 동질달 지킨 새벽의 바다 하나뿐인 이 약속

(시집 '통일의 바다', 세종출판사, 2022)



[시의 눈]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若無湖南是無國家)이라는 그분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만일 이 어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지도에서 사라졌을 일입니다. 우리는 그간 둘로 나누어졌지만 꿈에라도 다시 있고 싶은 짙줄이지요. '내 죽음을 적에 알리지 말라'는 당부, 사실 그분이 죽은 곳은 노랑바다가 아닙니다. 나라 잃어 힘쓸리는 처참한 백성들의 가슴이었지요. 아니, 지금의 이 철없이 떠돌고 먹고 버리는 우리들의 이기심의 한 구석일듯도요. 바다에 내지른 그분 외침을, 우리가 구기는 건 아닐까요. 일제 사슬로부터 해어나온지 430년, 오늘 광복 군과 해방 양이 울고 있습니다. 아파트 배관다도 태극기는 사라졌고, 항복 날 같은 울음비만 가득합니다. 그러, 이국민 시인은 통영에서 나, 서울예술대 연극과·문학과, 북경대 및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1980년 '현대시조' 신인상, 199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회적으로 등단했고, 시집 '통영별곡'(1992), 희곡집 '바다 위에 뜬 별'(1997), 시조집 '별신'(2012) 등을 냈습니다. 그는 총무공을 비롯하여 왜란 때 무명용사 200여명을 기리는 인물시조를 써 중국에 소개하는 일을 해 온 투박이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8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정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